Market Index / 20일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유가(WTI, 달러)			환율(원)		살때	팔때		살때	팔때
	▼	2333.29 -18.88		▼	703.13 -14.09		▲	75.38 +0.92		1USD	1306.47	1261.53	1EUR	1392.77	1338.43
										100￥	989.26	955.24	1CNY	193.59	175.17

노후준비 힘든 중장년… 소득 '최저'

제주 중장년 평균소득 전국 평균보다 낮은 3218만원
대출잔액 중앙값 전국 10번째… 56.2%는 '무주택자'
4명 중 1명은 공적·퇴직연금 없어 노후 생활 '막막'

제주지역 근로자 소득이 만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평균소득도 전국에서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장년층 4명 중 1명 꼴로 가입 연금이 없고, 33.7%는 미취업자로 집계됐다.

20일 통계청의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도내 중·장년(만 40~64세)층 인구(내국인)는 26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명 증가했다. 총인구(64만8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6%로 0.4%포인트(p) 높아졌다. 중·장년층의 66.3%는 등록 취업자이고, 나머지 33.7%는 미취업자다.

소득이 있는 중·장년층의 평균소득(근로·사업소득)은 3218만원으로 전국평균(3890만원)보다 17.3% 적은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소득이 가장 높은 세종(4946만원), 서울(4784만원), 울산(4269만원)에 견주면 1000만~1700만원정도 차이가 났다.

도내 중·장년층 중 금융권 대출잔액 보유자 비중은 61.6%로 10명 중 6명 꼴로 대출을 갖고 있었다. 세종(62.8%)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다. 대출잔액 중앙값은 5342만원으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많았다. 대출 금액은 1000만~3000만원 미만이 20.8%로 가장 높았고 이어 ▷1억~2억원 미만(16.1%) ▷1000만원 미만(14.1%) ▷3억원 이상(13.0%) ▷3000만~5000만원 미만(12.7%) 순이다.

중·장년층 개인이 소유한 주택 비중은 43.8%로, 무주택자(56.2%)가 더 많았다. 주택 소유자의 33.9%는 1건을 소유했고, 2건 소유 7.4%, 3건 이상 소유자 비중은 2.5%로 집계됐다. 주택 소유자의 주택자산가액은 ▷6000만~1억5000만원 이하(35.4%) ▷1억5000만~3억원 이하(30.8%) ▷3억~6억원 이하(15.8%) ▷6000만원 이하(11.3%) ▷6억원 초과(6.6%) 순이다.

중·장년층의 76.8%는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에 가입중이고, 나머지 23.2%는 연금이 없어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중·장년층 가구는 17만9000가구로, 평균 가구원 수는 2.64명이다. 1인가구 비중은 23.3%로 전국에서 강원과 함께 가장 높았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세계여행관광협회 인증 안전여행 스탬프(사진 오른쪽)와 친환경 관광콘텐츠 '이-런(E-RUN) 트립'의 플로빙 활동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안심, 안전하게" 제주관광이 달라진다

전 세계 관광 키워드 '안전'
제주도, 안전기준안 만들고
안전여행 스탬프도 획득
'이-런 트립'·웰니스 등
친환경관광 콘텐츠 개발도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의 질적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안전'이라는 키워드로 관광산업에 대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제주도는 이같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관광수용태세 시스템을 마련하고, 책임관광 의식 확산과 제주 특화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수요 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 여행지, 제주=코로나19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하고 여행 문턱을 낮춘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수요도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동남아를 잇는 국제선 하늘길이 넓어지면서 해외로 눈을 돌려 여행을 떠나려는 내국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그동안 해외 대신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의 발길에 호조세를 이어온 제주 관광에 대해 경쟁력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업, 숙박업, 관광지업, 교통업, 여행업 등 5대 업종을 대상으로 제주안전여행 기준안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1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서 인증하는 안전여행 스탬프를 획득했다. 안전여행 스탬프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을 고려한 세계 안전여행 기준을 채택한 전 세계 정부와 기업, 기관에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스페인, 호주, 괌, 두바이 등 400여곳이 이를 획득해 안전 여행지라는 이미지 마케팅을 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와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 상시적으로 현장 지도·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관광요금 부당 행위 등 제주관광 이미지를 저해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여름 성수기 동안 '안심·친절·공정가격'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전개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관광객들의 불편사항도 다양해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불만제로' 제주관광 조성 시책도 진행되고 있다.

▶국내 여행 활성화 마케팅 강화=제주에 특화된 관광콘텐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도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친환경 관광콘텐츠 '이-런(E-RUN) 트립'이 대표적이다.

'이-런 트립'은 차 대신 걷거나 뛰기 또는 해양레저스포츠인 프리다이빙을 접목한 해양 정화 활동인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줍기)'과 '플로빙(다이빙하면서 쓰레기 줍기)'을 통해 친환경 여행 정착과 해양환경 보호 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사의 폐기물 최소화와 재활용 추진, 플라스틱 제로 실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지속가능인증원(IGSC)과 이탈리아 PFC가 개발한 제로웨이스트 이벤트·플라스틱 프리 이벤트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형 웰니스 관광, 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한편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제주세무서장 '부이사관' 승격

국세청, 직제개정안 공고… 납세서비스 향상

제주세무서가 이달 29일부터 3급지 세무서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부이사관급 세무서장이 부임하게 되면서 세정 역량과 함께 납세서비스도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는 68만명의 인구에 납세인원 31만명, 세수 2조원이 넘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4급(서기관) 세무서장의 직급을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21일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제주세무서장의 직급을 현재 4급에서 3급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공포·시행은 이달 29일부터다.

부이사관이 기관장인 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와 성동세무서 2곳 뿐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제주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분당세무서가 부이사관 세무서장 관서로 승격되며 모두 4곳으로 늘어난다.

세무서장 자리의 부이사관 승격은 인구와 세수 증가뿐 아니라 납세자 규모와 세원의 복잡성, 세무서장의 직무 책임성, 업무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제주세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자체의 위상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구조로 인한 사기 저하와 전문인력 유출로 인한 국세행정 전문성 약화, 납세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어왔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구조로 도내 지자체와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경제계에서는 제주세무서장의 직급 상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이번 승격 결정을 일제히 반기며 조세행정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제주는 관광지로 투자자 유입이 가파르게 늘어나며 세수 증가는 물론 납세자 갈등 조정 등 복잡한 민원이 상존하고 있다"며 "부이사관 기관장 관서로 승격되면서 조직 통솔이나 직원들의 역량 향상으로 납세서비스와 과세품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감귤묘목 분양
• 천 혜 향 2, 5년생
• 하례조생 4년생
• 레 드 향 2, 3년생
• 한 라 봉 2, 3년생
• 유라조생 2, 3년생
• 유라실생 4, 5년생
• 하 귤 4, 5년생
• 궁 천 3, 5년생
• 레 몬 4년생
• 황 금 향 2년생
• 그외 다수품종
제일종묘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78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6호
연락처 010-2699-2355 010-3694-2290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댕유자, 아마나스, 레몬, 탱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 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실생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레드향 1~5년생
• 사라향 • 탐나는봉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카라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종묘 공급]
포트묘란? ▶잔뿌리 형성과 뿌리손상 방지 ▶미수익시간 단축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잔뿌리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귤 / 금귤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장원농장 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게 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 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083 / 제 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